

제 42 호 · 2017 년 8 월 9 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

물류동향

연해주 선도개발구역 내 대형 곡물 터미널 건설 예정

- 연해주 미하일로브스크 선도개발구역 체르니고브스크 지역에 곡물 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임
 - 이번 건설에는 '체르니고브스키 아그라홀딩그사'가 참여하며 약 5억 루블이 투자될 예정임
 - 이번에 건설되는 곡물 터미널은 동시 저장 규모가 약 2만 톤에 달하며 곡물 터미널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약 3,400 ha의 옥수수, 콩, 보리 등을 재배할 계획임
- 연해주 미하일로브스크 선도개발구역은 대규모 농업 생산 및 정밀 가공 센터, 농산물 물류센터 등에 전문화된 지역임
 - 이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미하일로브스크 선도개발구역은 연해주 내 농업 클러스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
 - 현재 미하일로브스크 선도개발구역에는 7개의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약 450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임
 - 이에 따라 약 2,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됨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6512/>(검색일: 2017년 8월 1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극동공항 인프라 현대화 및 개발 예정

- 극동의 각 지방 정부들은 지역 내 공항 인프라를 현대화하거나 신규 개발할 예정임
- 현재 각 지역의 극동 공항은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시작함
- 이는 극동연방관구의 교통 및 지역 물류 접근성을 높이며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
- 이와 관련하여 공항 인프라 개발 문제는 9월에 개최될 극동경제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로 선정됨

하바롭스크 국제공항 현대화

- 하바롭스크 노브이 국제공항 현대화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완공될 예정임
- 국제공항 복합 개발 프로그램은 약 82억 루블이 투입되며 2017년 말까지 개발 계획의 약 80%까지 완료할 예정임
- 본 개발 프로그램에는 활주로 및 터미널 재건, 호텔 및 비즈니스 공간 신설, 전시회장,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
- 매년 하바롭스크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약 200만 명이며 약 3만 톤의 화물을 처리함

야쿠츠크 국제공항 건설

- 새로운 야쿠츠크 국제공항 건설은 2015년에 시작하여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임
- 현재 러시아 교통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의 2단계까지 완료했으며 총 예산 약 3억 3,400만 루블 중 2016년까지 2억 8,790만 루블을 집행함
- 2017년 개발 프로그램 3단계를 위해 약 5억 루블이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예산은 2018년에 집행될 계획임
- 2016년 야쿠츠크 공항 이용객은 약 87만 5,000명으로, 공사가 완료된 후 약 9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야쿠츠크 공항 재건은 2017년에 완료될 예정임

사할린 공항 재건 및 새로운 공항 건설 논의

- 유즈노-사할린 공항은 2016년 활주로 재건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보잉-747 항공기 수용이 가능해짐
- 사할린주에는 7개의 공항이 있으며 이중 2개의 공항은 쿠릴 열도에 위치해 있음



- 현재 사할린주 내 새로운 공항 건설을 논의 중이며 새로운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약 67억 루블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

캄차트카 공항 재건 및 새로운 공항 건설 논의

- 페트로파블롭스크-캄차트카 공항은 2016년 5월 활주로 재건을 완료했으며 터미널 건설을 위한 투자자를 찾고 있음
- 투자자는 2017년 9월 결정될 계획이며 약 7억 6,000만 루블이 투자될 예정임
- 캄차트카 공항 터미널은 시간당 최대 약 4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됨

블라디보스토크 활주로 재건

- 2019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의 두 번째 활주로 재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항 인프라 현대화 작업 중 최우선 순위임
- 첫 번째 활주로 재건 사업은 2012년에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두 번째 활주로 재건이 필요한 실정임
-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은 극동지역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으로 극동 공항 중 가장 많은 승객을 유치함
- 2016년 약 185만 명의 승객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이용했으며 연간 350만 명의 승객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됨
- 작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은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Changi Airports International사 등이 소유자가 됨
- 소유기업들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의 노선 확장 등을 통해 국내외 항공 및 여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최고의 허브 공항이 되고자 함

블라고벤젠스크 공항 활주로 개발

- 블라고벤젠스크에 위치한 이그나테바 공항의 두 번째 활주가 건설될 예정임
- 활주로 건설비용은 약 37억 루블로 2019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활주로를 확대함에 따라 모든 유형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할 될 것으로 예상됨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6526/> (검색일: 2017년 8월 1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물류이슈

극동 러시아-아세안 협력강화 동향과 시사점

- 러시아가 아세안(ASEAN) 창설 50주년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(ARF)의 필리핀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음
 - 러시아는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는 별도로 러시아-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함
 - 러시아 외교부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, 동아시아 외교장관회의, 아세안지역포럼 등 일련의 국제회의에 연쇄적으로 참석, 활발한 대 아세안 협력 외교를 펼쳤음
 - * 8월 6일, 러시아-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,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-태평양 지역통합과 연결성(connectivity)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
- 러시아는 대 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5월 러시아 소치에서 러시아-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
 - 정치, 안보, 경제, 문화, 인적 교류 등의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함
 - 특히 당시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-아세안 명사그룹을 구성하는 등 새로운 대화 메카니즘을 구축함

<러시아-아세안 협력 관련 주요 일지>

시기	주요 내용
2016. 3. 러시아-아세안 정상회의 공동 성명 (말레이시아, 쿠알라룸푸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 성장, 지속가능 발전, 번영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대화 파트너십을 강화 - 러시아-아세안 고위급 회의, 러시아-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, 러시아-아세안 무역 및 경제협력 실무그룹 등 다양한 차원의 협력채널 구성에 합의
2016. 3. 러시아-아세안 무역투자협력 로드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협력 분야) 운송, 통신, 보건, 환경, 관광, 자본시장, 금융, 농업, 에너지, 지적 재산권, 산업 등 각 분야 협력 강화 - (협력 지역) 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, 아세안 각국의 지역 통합



2016. 5 러시아-아세안 정상회의 (러시아 소치)	- 2016년 3월 러시아-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재확인 - 러시아와 아세안간 '전략적 파트너십' 승인
2017. 8. 러시아-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(필리핀, 마닐라)	- 소치 러시아-아세안 정상회의의 합의 이행 논의 -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이고, 균형적이며, 공정한 안보·협력 발전 방안 등 양자 관심사 논의

자료: 러시아 외교부 공식 사이트

러시아-아세안 무역투자 로드맵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사회경제 발전에 주목

- 러시아-아세안 무역투자 로드맵은 양측의 무역 관련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 메카니즘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춤
 - 러시아-아세안 간 무역 및 투자 진흥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함
 - 상품 및 서비스 무역, 투자 관련 기술적 규제, 표준화, 법규 준수 평가 절차 등 상호 이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추진함
 - 기타 중소기업(SMEs)의 육성, 과학기술, 에너지, 금융, 농업, 보건의료, 운송, 정보통신(IT) 기술, 인적 자원 개발, 관광 및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도모함
- 러시아-아세안 무역투자 로드맵은 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 사회경제 발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
 - 로드맵의 원칙과 목표를 설명하면서, 러시아의 **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**, 아세안의 신규 회원국인 **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 및 베트남**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함
 - 로드맵의 목표로서 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의 사회경제 발전,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의 아세안 지역 통합을 위한 특별·최혜국 대우 등을 명시함
- 러시아-아세안 무역투자 로드맵의 분야별 협력사항 중에서 물류 분야의 협력을 중시함
 - 로드맵은 모범 사례의 공유 등 10대항의 분야별 실천 과제를 제시함(아래 표 참조)
 - 이중 물류 분야는 5번째로 언급되고 있으며, 러시아-아세안 간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류망 구축의 목표 달성을 위해, 해상 및 육상 운송 루트 등 복합운송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시범운송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
 - * 이 사업의 핵심은 아세안 지역의 컨테이너 화물을 극동러시아 항만으로 운송한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(TSR)를 활용하여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보낸다는 것임



<러시아-아세안 무역투자 로드맵의 분야별 협력목표와 주요 추진과제>

분야 및 목표	추진 과제	기간
모범사례 및 지식 공유 상호합의 분야 경제협력 프로그램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운송, 통신, 보건, 환경, 관광, 자본시장, 금융, 농업, 에너지, 지적 재산권, 산업협력, 혁신 및 기타 분야에서 아세안과 러시아의 해당 기관 간 부문별 협의체 구성 · 이를 통한 모범사례 및 지식 공유 	2012년부터 지속 추진
농업 및 농산물 양자 무역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농산물 검역 관련 세미나/워크숍 개최를 통해 양측 법규, 규제 메카니즘 이해 2. 산림계획·개발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등 정보 교환 3. 종묘 실험 등 역량 강화 4. 어병 및 동물·가금류 질병예방 관련 정보 공유 5. 러시아-아세안 농업 전시회 개최 	2012년부터 지속 추진
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러시아-아세안 에너지협력 프로그램(2010~2015)의 이행 	2012년부터 지속 추진
러시아-아세안 물류망 개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극동러시아 항만으로의 해상운송 및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결합한 복합운송 시범 사업(컨테이너 화물) 2. 최신 항해 시스템을 적용한 새로운 항법 이용 가능성 연구 3. 운송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연구 4. 러시아-아세안 항공 서비스 협약 체결 타당성 연구 	2012년부터 지속 추진
산업협력	산업협력을 위한 공동 관심분야 확인	2012년부터 지속 추진
혁신 및 지적재산권 분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혁신 공동연구센터 등 설립 2. 지적재산권, 기술이전 등에 관한 공동연구기관 설립 3.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4. 통신 분야 협력 기회 모색 5. 농업개발과 인적개발을 결합한 기술이전 6. 스콜코보(Scolovo) 혁신센터의 협력 가능성 연구 	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개인 및 기관의 역량강화 모범사례 공유 2. 상호 인정 협정 및 협약 가능성 모색 3.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보 교환 	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광 및 관광투자 관련 세미나, 워크숍 개최 2. 관광 통계 및 관광 입출국, 관광 투자 관련 정보교환 3. 관광 및 여행 박람회, 투자·무역 박람회 참가를 통한 상호 방문 촉진 4. 관광 전문가 교환, 관광 산업분야 인력 개발을 위한 연수 추진 5. 아세안과 러시아 간 국가관광기구(NTOs) 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	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소기업 기업 육성 모범 사례 공유 2. 양자간 무역·투자 기회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3. 양자간 무역장벽 확인 및 무역장벽 해소 협력 4. 중소기업 기업의 무역·투자 촉진 방안 연구 	
인적자원 개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개인 및 기관의 역량강화 모범사례 공유 2. 상호 인정 협정 및 협약 가능성 모색 3.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보 교환 	2012년부터 지속 추진
관광협력 증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광 및 관광투자 관련 세미나, 워크숍 개최 2. 관광 통계 및 관광 입출국, 관광 투자 관련 정보교환 3. 관광 및 여행 박람회, 투자·무역 박람회 참가를 통한 상호 방문 촉진 4. 관광 전문가 교환, 관광 산업분야 인력 개발을 위한 연수 추진 5. 아세안과 러시아 간 국가관광기구(NTOs) 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	2012년부터 지속 추진
중소중견 기업협력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소기업 기업 육성 모범 사례 공유 2. 양자간 무역·투자 기회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3. 양자간 무역장벽 확인 및 무역장벽 해소 협력 4. 중소기업 기업의 무역·투자 촉진 방안 연구 	2012년부터 지속 추진

자료: ASEAN-Russia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Roadmap (http://www.mid.ru/en/main_en)



러시아는 특히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극동러시아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

- 극동러시아는 러시아 GDP의 6% 미만을 점유하고 있으나, 러시아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0%를 차지하여 경제력과 물동량 간 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음
 -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, 극동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들 국가로부터의 투자 유치 등으로 이와 같은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
 - * 극동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(ASEZ)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자유항 정책은 균형 발전 정책을 위한 양대 지렛대라고 할 수 있음
 - 러시아는 이를 위해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¹⁾을 주도하고 있으며, 이중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삼고 있음
 - * 2017년 3월,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 전권대사가 인도를 방문해 인도의 대표적인 전력회사인 타타 전력(TaTa Power)의 캄차카 탄광 투자를 이끌어냄
 - * 인도의 다이아몬드 회사 KGC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함
- 특히 러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
 - 2015년 5월, 베트남은 EAEU와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함
 - EAEU-베트남 FTA 체결 이후 베트남은 특히 극동러시아 지역의 농업 부문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
 - 2017년 3월 베트남의 유가공업체 TH True Milk사는 유기농 낙농 제품의 동북아 시장 수출을 목표로 17억 달러를 투자하여 극동 러시아 지역에 낙농 합작회사를 설립했음²⁾
 - 베트남은 또한 불법적인 벌목에 대한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단속 강화로 목재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벌목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
- 러시아는 또한 싱가포르와 무역·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
 - 2015년 싱가포르의 바올리 비투미나(Baoli Bitumina)는 극동러시아의 소베츠키 가바와 바니노 항의 석유·가스 터미널 현대화에 2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

1) 러시아, 아르메니아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 등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, 회원 국가 간 경제 통합(상품, 자본, 노동,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)을 목표로 2015년 1월 공식 출범함.

2) "Vietnamese dairy TH True Milk to invest further \$1.7bn in Russia," Foodbev Media, March 16, 2017 (<http://www.foodbev.com/news/vietnamese-dairy-th-true-milk-to-invest-further-1-7bn-in-russia/>) 참조. 동 기사에 따르면, TH True Milk측은 이미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과 인근 칼루가 지역에 투자한 바 있음.



- 싱가포르-러시아간 무역액은 2011~2015년 5년간 연간 10.36%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격히 증가해왔음
- 싱가포르는 또한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인도의 아세안 지역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, 러시아의 대 인도 투자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는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임

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

-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대 아세안 지역 협력 강화는 러시아 극동과 아세안 지역(베트남 및 싱가포르), 인도를 잇는 독자적인 아시아태평양 물류 루트 구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임
- 특히 러시아는 9월 초 개최 예정인 동방경제포럼(EEF)에서 극동러시아 개발 및 투자유치 노력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세부 협력 프로젝트를 EEF 시간표에 맞출 것으로 전망됨
- 신정부는 지난 7월 중순 '국정 100대 과제'를 공식 발표하면서, 신북방(러시아 극동 및 동북 3성, 몽골 등)과 신남방(아세안 및 인도)의 연결을 강조한 바 있으며, 러시아-아세안 협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 러시아-아세안 무역투자 협력 로드맵에서 강조된 러시아 극동 중심 국제 물류망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 - 상기 국제 물류망 구축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동 국제 물류망 구축시 '코리아 패싱'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
 - * 특히 부산항은 러시아-아세안 해상 물류망 상의 전략적 거점에 입지하고 있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박성준 전문연구원
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